

扶安 界火島의 新石器遺蹟¹⁾

金 圭 東 (國立全州博物館)

I. 머리말

전라북도 서해안 일대는 북으로 錦江河口에서 남으로 邊山半島의 북단까지 25km 이상의 干潟地가 길게 발달하여 있다. 원래 干潟地는 潮流에 의해서 운반된 실트, 점토 등의 微粒物質이 波浪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해안의 灣入部 등에 쌓여서 이루어지는 海岸 堆積地形이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높아지며, 그 前面은 육지에서 바깥 쪽으로 전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干潟地가 점차 높아지면 湖水로 침수되는 회수가 줄기 때문에 鹽生植物이 정착하여 鹽性湖澤으로 변화한다²⁾. 유적이 위치하는 계화도는 干潮時 육지와 연결되는 섬으로 干潟地가 넓게 발달된 곳이다. 또한 남-북으로 뻗어 있는 계화봉(해발 246.3m)의 동쪽과 남쪽 즉 육지와 면하고 있는 능선 말단부가 완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干潟地를 통한 식량자원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의 생활무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화도 일대에 인근한 고고학적 유적으로는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삼국시대의 패총·유물산포지·고분 등이 알려져 있다. 이는 干潮時 連陸되는 섬으로 干潟地에서 풍부한 貝殼類를 채취할 수 있으며, 干潟地 인근에 분포하고 있는 얇은 丘陵地가 인간의 거주에 상대적으로 유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신석기시대의 유적으로는 계화봉 정상에서 발견된 산상유적³⁾이 있고, 箕箕島·飛

1)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유적은 국립전주박물관이 1998년 실시한 부안 해안가 일대 유적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金圭東·崔興鮮 1999, 『扶安 海岸一帶 遺蹟地表調査 報告』, 國立全州博物館.

2) 張昊·南基庠, 1989, 『(全羅北道의) 自然環境』, 『全羅北道誌』, 全羅北道.

3) 全榮來, 1975, 『扶安地方 古代 圍郭遺蹟과 그 遺物』, 『全北遺蹟調査報告』 4.

鷹島·駕島·노래섬·띠섬 등의 패총⁴⁾이 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으로는 마제석검이 발견된 창북리 유물산포지와 변산반도 西端에 위치한 마포리 패총, 장신리 유물산포지가 있다⁵⁾. 원삼국시대의 유적으로는 인접한 창북리의 패총과 유물산포지가 있으며⁶⁾,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萬頃江口의 북쪽에 위치한 群山市 沃西面·澮縣面 일대의 수십개소에 달하는 貝塚⁷⁾과, 김제 심포리 주거지⁸⁾가 있다. 삼국시대의 유적으로는 죽막동 제사유적과 인접한 창북리의 古墳과 유물산포지, 장신리의 유물산포지⁹⁾가 있고, 周留城으로 추정되는 位金岩山城¹⁰⁾이 있다.

이상에서 계화도를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 서해안 일대 각종 유적의 분포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貝塚과 遺物散布地가 대부분이지만 계화도와 군산을 중심으로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어 당시부터 인간의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이 일대가 해로를 통한 이동이나 내륙으로의 진출에 상대적으로 편리한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¹¹⁾.

Ⅱ. 界火島의 新石器遺蹟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新石器時代 貝塚 12個所와 遺物散布址 1個所이다. 모두 地表調査를 통해 확인된 遺蹟이고 採集遺物 역시 몇점의 파편들에 불과해, 정확한 현상 파악은 힘들다. 하지만 개략적인 遺蹟의 성격을 통해 최근 점증하고 있는 新石器時代의 資料 蓄積이라는 측면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 4) 尹德香, 1995, 『群山地域의 貝塚』 第3回 湖南考古學會 學術大會.
 - 5) 金圭東·崔興鮮 1999, 『扶安 海岸一帶 遺蹟地表調査 報告』, 國立全州博物館.
 - 6) 註5)의 前掲書.
 - 7) 郭長根, 1996, 『群山市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群山大學校博物館.
 - 8) 俞炳夏·崔興鮮, 1999, 『金堤 深浦里一帶 文化遺蹟 收拾調査 報告』, 國立全州博物館.
 - 9) 註5)의 前掲書.
 - 10) 全樂來, 1994, 『周留城, 白江의 位置 比定에 관한 新研究』, 『文山 金三龍 博士 古稀 紀念論叢 - 馬韓·百濟文化와 彌勒思想』.
 - 11) 尹明喆, 1995, 『竹幕洞 遺蹟의 海洋歷史的 環境에 대한 一考察』,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국제학술심포지움발표요지.